

## 經絡의 循環과 精氣 生成의 관계에 대한 연구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Circulation of Meridians〔經絡〕 and Generation of The essence Gi〔精氣〕

Baik You-Sang

Dept.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In the Circular flow of Meridians〔經脈〕, the circulation of Nutrient Gi〔營氣〕 is that the essence Gi〔精氣〕 of food starts from Middle Cho〔中焦〕, via heart and lung into the ring-type round of 12 Meridians〔十二經脈〕 in turn of hand Meridians〔手經〕 and foot Meridians〔足經〕, Yang Meridians〔陽經〕 and Eum Meridians〔陰經〕. The circulation of Defensive Gi〔衛氣〕 is that if going out from Eum part〔陰分〕 into Yang part〔陽分〕, is rounding on the Yang Meridians, if going out from Yang part into Eum part, is rounding on the five Jang〔五臟〕 in order of Kidney〔腎〕-Heart〔心〕-Lung〔肺〕-Liver〔肝〕-Spleen〔脾〕. Because the process of accumulating the essence Gi has a property of One-way flow, it flows from terminal to the direction of body trunk, has no distinct channel with its immaterial nature, and is concentrated on the lower part to that the five Jang belong.

Key Words : Meridians, essence Gi〔精氣〕, five Jang〔五臟〕

### I. 序 論

『黃帝內經』에 나오는 經絡의 流注 中에는

\* 교신저자 : 백유상, 서울시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baikys@hanmir.com Tel : 02-961-0337

手太陰肺經부터 시작하여 足厥陰肝經까지 手經과 足經, 陰經과 陽經을 갈마들어 循環하고 다시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는, 고리와 같이 끊어짐이 없는 流注가 있으며, 예를 들어 五臟六腑의 經脈마다 각각 輸穴이 있어 經絡의 氣를 四肢 末端에서부터 體幹으로 行하게 하는

一方的인 流注가 있으니, 이 두 가지 流注는 經絡學說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

循環的 經脈 流注는 몸의 內部로부터 氣血을 끌어내어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循環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氣의 發散 과정에 속하고, 一方的 經脈 流注는 末端으로부터 氣가 出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서 氣의 收斂 과정에 속한다. 經絡의 流注에 있어서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며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循環的 經脈 流注와 一方的 經脈 流注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經脈 流注와 관련이 있는 營衛氣血 및 五臟 精氣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一方的 經脈 流注가 五臟 精氣의 生成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衛氣의 循環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 II. 本論

### 1. 循環的 經脈 流注와 一方的 經脈 流注

#### 1) 循環的 經脈 流注

##### (1) 十二經脈의 營氣 循環

고리와 같이 끝이 없이 계속 순환하는 經脈 流注에는 手太陰肺經부터 시작하여 手經, 足經과 臟腑의 陰經, 陽經을 번갈아 교대로 흘러서 足厥陰肝經에 이르러 한 週期가 끝나고 다시 手太陰肺經에서 流注를 시작하는 營氣의 循環이 있다. 『靈樞·營氣』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營氣之道, 內穀爲實,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

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sup>1)</sup>.

故氣從太陰出注手陽明, 上行注足陽明, 下行至跗上, 注大指間, 與太陰合, 上行抵脾, 從脾注心中, 循手少陰, 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 出頰內, 注目內眥, 上巔下項, 合足太陽, 循脊, 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 注足少陰, 上行注腎, 從腎注心, 外散於胸中, 循心注脈, 出腋, 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臆中, 散於三焦, 從三焦注膽, 出脇, 注足少陽, 下行至跗上, 復從跗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從肝上注肺, 上循喉嚨, 入頰頰<sup>2)</sup>之竅, 究於畜門<sup>3)</sup>. 其支別者, 上頰, 循巔, 下項中, 循脊, 入骶, 是督脈也, 絡陰器, 上過毛中, 入臍中, 上循腹裏, 入缺盆, 下注肺中, 復出太陰, 此營氣之所行也, 逆順之常也.

여기서 經隧란 좁은 도랑처럼 윤곽이 뚜렷하고 깊은 길을 말하는데<sup>4)</sup>, 胃로 들어온 水穀의 기운 중에 가장 精微로운 것 즉, 營氣가 이 길을 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營氣가 經隧를 行하기 위해서는 肺의 布散 작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1) 營氣의 循行이 時空間의 一定함을 말하고 있다.
- 2) 頰頰: 頰은 亢, 頰과 통용하여 목을 뜻하고 頰은 喉과 통하여 목구멍을 말한다. 『太素』에서는 “喉嚨上孔名頰頰”이라 하여 喉頭의 上部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 3) 畜門: 『太素·卷十二·營衛氣』에서는 “畜門, 鼻孔也.”라 하였고, 『類經·經絡類·營氣運行之次』에서는 “究, 深也. 畜門即喉屋上通鼻之竅門也, 如『平熱病論』啓玄子有云‘氣衝突於畜門, 而出於鼻’ 即此謂也.”라 하여 코구멍이나 코에서 후두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 4) 經隧: 『素問·調經論』에서는 “五藏之道, 皆出於經隧, 以行血氣.”라 하여 血과 氣가 行하는 通路라고 하였다. 王冰은 “隧, 潛道也, 經脈伏行而不見, 故謂之經隧焉.”이라 하였으며 『類經·疾病類·有餘有五不足有五』에서는 “隧, 潛道也, 經脈伏行, 深而不見, 故曰經隧. 五藏在內, 經隧在外, 脈道相通, 以行血氣.”라 하여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이 위치하여 氣血을 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순환이 처음에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馬蒔는 營氣의 運行이 胸中에 쌓였다가 퍼지는 宗氣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 문으로 보았으며<sup>5)</sup> 黃元御는 脾의 散精 작용 을 거쳐서 肺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았다<sup>6)</sup>. 즉 肺氣의 宣發 작용에 의하여 營氣가 循環하 기 때문에 手太陰肺經에서 시작과 끝남이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 (2) 衛氣의 循環

循環的 流注의 하나로서 衛氣의 循環이 있 는데 衛氣는 營氣처럼 十二經脈을 순차적으로 循環하지 않는다. 衛氣는 낮에는 陽分으로 나 와 手足 三陽經을 循環하고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가 五臟을 차례로 循環한다. 『靈樞·衛氣行 』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故衛氣之行，一日一夜五十周於身<sup>7)</sup>，晝日行於 陽二十五周，夜行於陰二十五周，周於五藏，是 故平旦陰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 於目銳眥，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 散者，別於目銳眥，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別者以 上至耳前，合於額脈，注足陽明以下行，至跗上， 入五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 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 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周。

其始入於陰，常從足少陰注於腎，腎注於心，心注 於肺，肺注於肝，肝注於脾，脾復注於腎爲周，是 故夜行一舍，人氣行於陰藏一周與十分藏之八， 亦如陽行之二十五周，而復合於目，陰陽一日一 夜，合有奇分十分身之二，與十分藏之二，是故人 之所以臥起之時有早晏者，奇分不盡故也。

낮에는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少陽, 足 陽明, 手陽明의 순으로 一周하고 마지막으로 足心의 陰分으로 들어가는데, 太陽, 少陽, 陽明 의 開, 樞, 闔의 순서로 진행하며 上下 手足을 번갈아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開闔樞 안 에서 足經에서 출발하여 手經으로 올라오는 형식인데 이것은 衛氣가 下焦에서 出하여 위 로 올라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衛氣가 아침에 足太陽經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平旦에 陽氣가 上走하여 먼저 눈으로 모여서 깨어나기 때문 으로 설명하고 있다<sup>8)</sup>.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와 腎, 心, 肺, 肝, 脾의 五行 相克 순서로 五臟을 巡行하고<sup>9)</sup> 다시 腎으로 들어가서 一周한다.

5) 馬蒔는 “此言營氣之運行，一如宗氣之所行也。宗氣者，大氣也，大氣積於胸中，出喉嚨，司呼吸，以行經隧，始於手太陰肺經，終於肝經，積至一萬三千五百息，脈行八百一十丈，如前篇『五十營』之所論者，是也... 道者，脈氣所由行之經隧也，正以穀入於胃，則精微之氣，卽升之而爲宗氣者，由中焦傳肺經之中府，以上雲門，而行手太陰肺。”라 하였다.

6) 『靈樞懸解·營氣 三十四』에서 “營氣之道，以內穀爲實，穀入於胃，消化於脾，脾氣散精，乃傳於肺。肺主氣，氣化津，津則流溢於中，氣則布散於外。”라 하였다.

7) 嚴東明, 營衛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p. 32: “五十營이라 할 때 五十이라는 數는 營衛之氣가 하루에 인체를 五十度 운행하는 기준이 된다. 이 ‘五十’이라는 數는 모두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하여 五藏六府가 모두 營衛의 공급을 충분히 받는다는 데서 설정된 수로서, 이는 『周易』의 大衍之數 ‘五十’에서 연원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여 五十이 모 든 것을 총괄하는 완전 數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에 脈道를 오십 번 돈다고 보았다.

8) 『類經·經絡類·衛氣運行之次』에서 “太陽始於睛明，故出於目。然目者，宗脈之所聚，凡五藏六府之精陽氣，皆上走於目而爲睛，故平旦陰盡，則陽氣至目而目張。目張則衛氣由睛明穴上頭，循項，下足太陽經之分，循背下行，以至足小指端之至陰穴也。”라 하였고, 『靈樞懸解·衛氣行 三十五』에서도 “平旦陰盡，陽氣出於目內眥之睛明，人醒目張則陽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經，循背，下至小指之端，此衛氣之行於足太陽也。”라 하였다.

9) 『太素·衛五十周』에서 “衛氣夜行五藏，皆從能剋，注於所剋之藏，以爲次也。”라 하였고, 『類經·衛氣運行之次』에서도 “此言衛氣夜行陰分，始於足少陰，以周五藏，其行也，以相剋爲序，故腎心肺肝脾相傳，爲一周，而復注於腎也。”라 하여 相剋의 傳하여 藏으로 전한다고 보았다. 일 반적으로 相剋의 傳함이 氣가 침입하였을 때 나타 나는데, 해당 臟이 직접 氣를 生成하여 傳하는 것은 相生 關係의 臟으로 가지만 외부의 氣가 들어와서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는 相剋으로 전한다고 볼 수

2) 一方的 經脈 流注

(1) 輸穴의 流注

五臟六腑의 輸穴을 통하여 氣가 流注하는 것은 循環의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井穴에서 시작하여 合穴에서 끝나게 된다. 輸穴이란 각 經脈의 氣를 五臟六腑로 傳하는 穴이란 뜻인데 일정한 자리를 잡게 되면 腧라 하여<sup>10)</sup> 陰經에는 五腧, 陽經에는 六腧가 각각 분포하게 된다<sup>11)</sup>. 『靈樞·九鍼十二原』에서는 井榮腧經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黃帝曰：願聞五藏六府所出之處。岐伯曰：五藏五腧，五五二十五腧，六府六腧，六六三十六腧，經脈十二，絡脈十五，凡二十七氣。以上下所出爲井<sup>12)</sup>，所溜爲榮<sup>13)</sup>，所注爲腧<sup>14)</sup>，所行爲

이다. 여기서는 陽의 성질을 가진 衛氣가 陰分에 들어와 있으므로 五臟이 相剋의 臟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10) 輸는 俞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俞는 일반적인 穴을 通稱한다. 輸는 輸運, 輸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옮기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穴로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經穴 중에서 특별히 氣가 많이 모이고 그 氣를 다른 곳을 옮겨주는 역할을 잘 하는 穴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腧는 井榮腧經合 중의 腧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皮膚肌肉之間에 위치하여 氣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혈자리를 가리킨다. 이상의 俞, 輸, 腧는 약간씩 의미의 차이는 있으나 본 글자와 파생된 글자를 서로 섞어 쓰는 한문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通用될 수 있다.

11) 이 輸穴 중에서 陽經에는 특히 原穴이 있어서 六腧가 되는데, 原穴은 腧穴과 經穴 사이에 위치하여 氣가 가장 성하여 밖으로 잘 드러나는 자리이며 陰經에는 土穴인 腧穴이 原穴을 대치하고 있다. 五臟六腑의 氣가 이 原穴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靈樞·九鍼十二原』에서 “五藏有六府，六府有十二原，十二原出於四關，四關主治五藏，五藏有疾，當取之十二原。十二原者，五藏之所以稟三百六十五節氣味也。五藏有疾也，應出十二原，十二原各有所出，明知其原，視可應，而知五藏之害矣。”이라 하였다.

12) 『類經·經絡類·井榮腧經合數』에서 “脈氣由此而出如井泉之發 其氣正深也.”라 하였는데, 井穴은 마치 샘물처럼 가장 처음으로 기운이 모여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를 말한다. 그리고 그 根源이 깊기 있으므로 그 氣가 끊이지 않고 곧게 뻗어나온다고 하였다. 『本輸篇』에서는 氣가 나온다고 표현하였다.

13) 榮이란 물이 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불어나기 시작

經<sup>15)</sup>，所入爲合<sup>16)</sup>，二十七氣所行，皆在五腧也.

井穴은 샘물과 같아서 그 세력이 미약하지만 榮穴을 지나 腧穴이나 經穴로 오면 마치 시냇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세력이 커지게 되고 다시 合穴에 오면 氣가 안으로 수렴되어 외부로는 세력이 다시 미약해진다. 따라서 井穴이 五臟六腑의 腧穴을 流注하는 氣의 출발점이며 合穴이 그 氣의 종착점을 알 수 있다. 『靈樞·本輸』에서는 다시 구체적인 腧穴의 穴位에 대하여 말하였다.

肺出於少商，小商者，手大指端內側也，爲井木。溜於魚際，魚際者，手魚也，爲榮。注於太淵，太淵，魚後一寸陷者中也，爲腧。行於經渠，經渠，寸口中也，動而不居，爲經。入於尺澤，尺澤，肘中之動脈也，爲合，手太陰經也。心出於中衝，中衝，手中指之端也，爲井木。溜於勞宮，勞宮，掌中中指本節之內間也，爲榮。注於大陵，大陵，掌後兩骨之間方下者也，爲腧。行於間使，間使之道，兩筋之間，三寸之中也，有過則至，無過

하는 것을 말한다. 샘물이 地上으로 나오면 우선 한 곳에 모여서 웅덩이를 만들다가 그것이 불어서 넘치면 물줄기를 이루어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기 직전의 상태를 榮이라 하였다. 『類經·經絡類·井榮腧經合數』에서는 “急流曰溜 小水曰榮。脈出於井 而溜於榮 其氣尚微也.”라 하였는데, 急流란 웅덩이 속에서 물이 도는 모양으로 그 웅덩이가 작아서 물의 세력이 아직 약한 것이다.

14) 腧穴은 榮에서부터 물길에 터져나가는 것을 말하니 決의 의미와 같다. 『類經·經絡類·井榮腧經合數』에서는 “注 灌注也。腧 輸運也。脈注於此 而輸於彼 其氣漸盛也.”라 하여 비로소 腧穴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점점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15) 經은 줄기로서 이미 흘러 나간 물이 큰 줄기를 이루어 우리 몸을 經營하고 滋養하는 것을 말한다. 『類經·經絡類·井榮腧經合數』에서는 “脈氣大行 經營於此 其正盛也.”라 하였다.

16) 『類經·經絡類·井榮腧經合數』에서 “脈氣至此 漸爲收藏 而入合於內也.”라 하여 脈氣가 合穴에 이르러 점차로 몸 속으로 거두어져 들어간다고 하였다. 밖에서 볼 때 몸 안으로 氣가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이니 그 세력은 오히려 약하다.

則止, 爲經. 入於曲澤, 曲澤, 肘內廉下陷者之中也, 屈而得之, 爲合, 手少陰也<sup>17)</sup>. 肝出於大敦, 大敦者, 足大指之端及三毛之中也, 爲井木. 溜於行間, 行間, 足大指間也, 爲榮. 注於太衝, 太衝, 行間上二寸陷者之中也, 爲腧. 行於中封, 中封, 內踝之前一寸半, 陷者之中, 使逆則宛, 使和則通, 搖足而得之, 爲經. 入於曲泉, 曲泉, 輔骨之下, 大筋之上也, 屈膝而得之, 爲合, 足厥陰也. 脾出於隱白, 隱白者, 足大指之端內側也, 爲井木. 溜於大都, 大都, 本節之後, 下陷者之中也, 爲榮. 注於太白, 太白, 腕骨之下也, 爲腧. 行於商丘, 商丘, 內踝之下, 陷者之中也, 爲經. 入於陰之陵泉, 陰之陵泉, 輔骨之下, 陷者之中也, 伸而得之, 爲合. 足太陰也. 腎出於湧泉, 湧泉者, 足心也, 爲井木. 溜於然谷, 然谷, 然骨之下者也, 爲榮. 注於太谿, 太谿, 內踝之後, 跟骨之上陷中者也, 爲腧. 行於復溜, 復溜, 上內踝二寸, 動而不休, 爲經. 入於陰谷, 陰谷, 輔骨之後, 大筋之下, 小筋之上者, 按之應手, 屈膝而得之, 爲合, 足少陰經也. 膀胱出於至陰, 至陰者, 足小指之端也, 爲井金<sup>18)</sup>. 溜於通谷, 通谷, 本節之前外側也, 爲榮.

注於束骨, 束骨, 本節之後陷者中也, 爲腧. 過於京骨, 京骨, 足外側大骨之下, 爲原. 行於崑崙, 崑崙, 在外踝之後, 跟骨之上, 爲經. 入於委中, 委中, 膕中央, 爲合, 委而取之. 足太陽也. 膽出於竅陰, 竅陰者, 足小指次指之端也, 爲井金. 溜於俠谿, 俠谿, 足小指次指之間也, 爲榮. 注於臨泣, 臨泣, 上行一寸半陷者中也, 爲腧. 過於丘墟, 丘墟, 外踝之前, 下陷者中也, 爲原. 行於陽輔, 陽輔, 外踝之上, 輔骨之前, 及絕骨之端也, 爲經. 入於陽之陵泉, 陽之陵泉, 在膝外陷者中也, 爲合, 伸而得之. 足少陽也. 胃出於厲兌, 厲兌者, 足大指內此指之端也, 爲井金. 溜於內庭, 內庭, 次指外間也, 爲榮. 注於陷谷, 陷谷者, 上中指內間, 上行二寸陷者中也, 爲腧. 過於衝陽, 衝陽, 足跗上五寸陷者中也, 爲原. 搖足而得之. 行於解谿, 解谿, 上衝陽一寸半陷者中也, 爲經. 入於下陵, 下陵, 膝下三寸, 脛骨外三里也, 爲合. 復下三里三寸, 爲巨虛上廉, 復下上廉三寸, 爲巨虛下廉也, 大腸屬上, 小腸屬下, 足陽明胃脈也. 大腸小腸, 皆屬於胃, 是足陽明也.

三焦者, 上合手少陽, 出於關衝, 關衝者, 手小指次指之端也, 爲井金, 溜於液門, 液門, 小指次指之間也, 爲榮. 注於中渚, 中渚, 本節之後陷中者也, 爲腧. 過於陽池, 陽池, 在腕上陷者之中也, 爲原, 行於支溝, 支溝, 上腕三寸, 兩骨之間陷者中也, 爲經. 入於天井, 天井, 在肘外大骨之上陷者中也, 爲合, 屈肘乃得之. 三焦下腧, 在於足大指之前, 少陽之後, 出於膕中外廉, 名曰委陽, 是太陽絡也, 手少陽經也. 三焦者, 足少陽太陰之所將, 太陰之別也, 上踝五寸, 別入貫膈腸, 出於委陽, 並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 實則閉癰, 虛則遺溺, 遺溺則補之, 閉癰則瀉之. 手太陽小腸者, 上合手太陽, 出於少澤, 少澤, 小指之端也, 爲井金. 溜於前谷, 前谷, 在手外廉本節前陷者中也, 爲榮. 注於後谿, 後谿者, 在手外側本節之後也, 爲腧. 過於腕骨, 腕骨, 在手外側腕骨之前, 爲原. 行於陽谷, 陽

17) 心包經이 心經을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靈樞·邪客』에서 “黃帝曰, 手少陰之脈, 獨無腧, 何也. 岐伯曰, 少陰, 心脈也. 心者, 五藏六府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 其藏堅固, 邪弗能容也. 容之則心傷, 心傷則神去, 神去則死矣. 故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 心主之脈也, 故獨無腧焉. 黃帝曰, 少陰獨無腧者, 不病乎. 岐伯曰, 其外經病而藏不病, 故獨取其經於掌後銳骨之端, 其餘脈出入屈折, 其行之徐疾, 皆與手少陰心主之脈行也.”라 하여 心이 精神之所舍로서 刺鍼하여 傷害를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邪氣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쉽게 상하지 않아 병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18) 陽經에서 五輸穴의 五行 속성이 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白上龍은 “陽經은 陽의 作用을 시행하기 때문에 陽의 뿌리가 되는 陰을 출발점으로 하므로, 陰化의 시초가 되는 金으로부터 일이 시작되며, 陰經은 陰의 作用을 시행하기 때문에 陰의 뿌리가 되는 陽化의 시초인 木으로부터 일이 시작된다.”(經絡에 대한 小考, 경희한의대논문집 20(1):p. 267, 1997)라고 하여 經絡의 陰化, 陽化 운동으로 설명하였다.

谷, 在銳骨之下陷者中也, 爲經. 入於小海, 小海, 在肘內大骨之外, 去端半寸陷者中也, 伸臂而得之, 爲合, 手太陽經也. 大腸上合手陽明, 出於商陽, 商陽, 大指次指之端也, 爲井金. 溜於本節之前二間, 爲榮. 注於本節之後三間, 爲腧. 過於合谷, 合谷, 在大指岐骨之間, 爲原. 行於陽谿, 陽谿, 在兩筋間陷者中也, 爲經. 入於曲池, 在肘外輔骨陷者中也, 屈臂而得之, 爲合, 手陽明也. 是謂五藏六府之腧, 五五二十五腧, 六六三十六腧也, 六府皆出足之三陽, 上合於手者也.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각 문단의 서두에 五臟六腑의 氣가 井穴에서부터 出한다고 하여 經脈 자체를 循行하는 氣血보다는 臟腑의 氣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陽經의 경우에 足三陽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手三陽을 말하고 있는데 手三陽은 아래에서 출발하여 위로 승한 것이라 하였다. 곧 手三陽에 해당하는 大腸, 小腸, 三焦 등의 腑는 아래 부위에 위치하거나 관련되어 있지만, 그 해당 經絡은 손에 있어서 氣가 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手經에 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아래에 있는 五臟六腑의 氣가 중심이 되어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즉, 手三陽의 경우 비록 井穴에서 氣가 출하지만 그 깊은 근원은 역시 아래에 위치한 六腑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三焦의 경우에는 上下로 모두 氣가 드러나므로 따로 아래에도 下腧를 두어 그 流注를 설명하고 있다.

## (2) 根結의 流注

根結의 의미는 經脈의 기운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지, 잎에 이르러 열매가 맺히듯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sup>19)</sup>. 『靈樞·根結』에서는 다

19) 『本輸篇』에서는 氣의 出入에 대하여 말하였으나, 氣가 발생하였다가 그것이 열매처럼 맺혀서 들어온다는 根結의 의미를 똑같이 내포하고 있다. 李容範

음과 같이 말하였다.

岐伯曰, 天地相感, 寒暖相移, 陰陽之道, 孰少孰多, 陰道偶, 陽道奇. 發於春夏, 陰氣少, 陽氣多, 陰陽不調, 何補何瀉. 發於秋冬, 陽氣少, 陰氣多, 陰氣盛而陽氣衰, 故莖葉枯槁, 濕雨下歸, 陰陽相移, 何補何瀉. 奇邪離經, 不可勝數, 不知根結, 五藏六府, 折關敗樞, 開闔而走, 陰陽大失, 不可復取. 九鍼之玄, 要在終始<sup>20)</sup>, 故能知終始, 一言而畢, 不知終始, 鍼道咸絕.

여기서는 식물을 예로 들어 뿌리는 陰氣를, 잎과 가지는 陽氣를 상징하고 있다. 봄이나 여름에는 陽氣가 성해져서 기운이 밖의 가지나 잎으로 몰리게 되고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반대로 기운이 뿌리로 몰리는데 뿌리에 陰氣가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根結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太陽根於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 陽明根於厲兌, 結於頰大, 頰大者, 鉗耳<sup>21)</sup>也. 少陽根於竅陰, 結於窗籠<sup>22)</sup>, 窗籠者, 耳中也. 太陽爲闔, 陽明爲闔, 少陽爲樞, 故開折則肉節瀆而暴病起矣. 故暴病者, 取之太陽, 視有餘不足, 瀆者, 皮肉宛焦而弱也. 闔折則氣無所止息,

은 “本輸가 있는 脈은 바로 經脈의 활발하게 퍼는 작용이 四肢末端에서 그 極을 이루었을 때, 그 작용의 결과로 생성된 열매(生殖之精의 前段階라 할 수 있는)를 몸속 臟腑로 거두어 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p. 41)라고 하여 本輸의 흐름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20) 여기서 終始란 바로 각 經脈의 根과 結을 말한다.

21) 鉗이란 죄인의 목에 칼을 씌울 때 걸리는 부분이니 鉗耳란 귀의 앞쪽 아래 목 부위에 해당한다. 『衛氣篇』에서는 “足陽明之本, 在厲兌, 標在人迎頰挾頰頰也.”라 하여 人迎에서 귀까지 이어지는 부위로 보았다. 『類經·經絡類·諸經根結開闔病刺』에서는 “今日頰大者, 意謂頰頰之上, 大迎穴也.”라 하여 大迎穴로 보았고 馬蒔는 頭維穴로 보았다.

22) 『類經·經絡類·諸經根結開闔病刺』에서는 “上者 結於窗籠, 耳中者, 乃手太陽聽宮穴也.”라 하였다.

而痿疾起矣,故痿疾者,取之陽明,視有餘不足,無所止息者,眞氣稽留,邪氣居之也,樞折即骨繇而不安於地,故骨繇者,取之少陽,視有餘不足,骨繇者,節緩而不收也,所謂骨繇者,搖故也,當窮其本也.

太陰根於隱白,結於太倉<sup>23)</sup>.

少陰根於湧泉,結於廉泉.

厥陰根於大敦,結於玉英<sup>24)</sup>,絡於臚中.

太陰爲開,厥陰爲闔,少陰爲樞.故開折則倉廩無所輸膈洞,膈洞者,取之太陰,視有餘不足,故開折者,氣不足而生病也,闔折則氣絕而喜悲,悲者,取之厥陰,視有餘不足,樞折則脈有所結而不通,不通者,取之少陰,視有餘不足,有結者,皆取之不足.

足の 三陰三陽이 開闔樞를 대표하고 있는데, 足三陽(膀胱, 胃, 膽)은 모두 머리에서 結하고 足三陰(脾, 腎, 肝)은 모두 흉부 任脈에서 結하고 있다. 足經만을 開闔樞의 대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下焦를 陰氣, 곧 精氣가 모이는 뿌리로 보고 이것을 중시한 것이다<sup>25)</sup>. 그러므로 몸의 각 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開闔樞를 대표하는 것으로 精氣가 모이는 足 부위의 經을 들어 말하였고 상부에 속한 心, 心包, 肺로는 陰精이 수렴되지 않는다고 보아 開闔樞의 설명에서 빠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體幹으로부터 四肢의 經絡으로 氣血이 퍼져나간다고 보면 몸의 중심이 뿌리이고 말단의 經絡이 잎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靈樞·根結』에서 오히려 말단의 井穴을 根으로 보았고 체간에 속한 머리와 흉부에서 기운이 結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中心에서 表로 나가는 陽氣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중심으로 한 陰氣를 기준으로 보아서 이 陰氣가 말단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sup>26)</sup>. 몸 전체의 뿌리는 下焦에 있으나 동시에 經脈 각각의 뿌리는 오히려 陰氣가 수렴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末端에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陰經은 任脈에서 結하고 陽經은 頭部에서 結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陰經의 氣와 陽經의 氣가 集結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陽經에 경우에 주로 陽氣가 모이는 머리나 목 부위에서 結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足太陽根於至陰,溜於京骨,注於崑崙,入於天柱飛揚也.足少陽根於竅陰,溜於丘墟,注於陽輔,入於天容光明也.足陽明根於厲兌,溜於衝陽,注於下陵,入於人迎豐隆也.手太陽根於少澤,溜於陽谷,注於少海,入於天窗支正也.手少陽根於關衝,溜於陽池,注於支溝,入於天牖外關也.手陽明根於商陽,溜於合谷,注於陽谿,入於扶突偏歷也.此所謂十二經者,盛絡皆當取之.

여기서는 陽經의 流注에 대하여 다시 말하였는데, 마지막을 結이라고 하지 않고 輸穴의 流注처럼 溜, 注, 入이라 하였으며 入이 위치도 머리로 結하는 것이 아니라 頸項 부위에

23) 대부분의 醫家들이 太倉을 任脈의 中腕穴로 보았으며 張志聰은 “太倉者, 舌本也. 脾胃倉廩之官, 其脈連舌本, 散舌下, 使之迎糧, 故結於舌本, 名曰太倉.”이라 하여 舌本이라고 주장하였다.

24) 玉英은 任脈의 玉堂穴에 해당한다. 『類經·經絡類·諸經根結開闔病刺』에서 “玉英即玉堂, 任脈穴也.”라 하였다.

25) 手三陽의 경우 해당 腑는 아래에 있고 그 經脈은 위에 있는데 『本輸篇』에서는 手三陽이 아래에서 出하여 위로 승한 것이라 하여 역시 아래의 腑가 근본임을 말하였다.

26) 馬蒔는 “脈氣所起爲根 所歸爲結.”라고 하여 脈氣가 根에서 일어나 結로 돌아간다고 보았는데 이 때의 脈氣는 根이 중심이므로 陰氣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白上龍은 여기에 대하여 “장부가 精氣를 내어 경락에 보내 經氣로 전변하여 경락을 운영하면, 동시에 經絡도 자기의 기운을 장부로 보내, 장부의 精氣를 보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經絡에 대한 小考, 경희한의대논문집 20(1):p. 267, 1997)라고 하여 이 陰氣가 臟腑의 精氣라고 하였다.

집중되어 있다. 이 入의 자리는 輸穴 중 合穴과 마찬가지로 氣가 다시 속으로 수렴되어 들어가는 곳인 동시에, 結의 자리로서 말단의 뿌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氣가 변화를 거쳐서 열매처럼 맺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내용은 『靈樞·本輸』와 동일하며<sup>27)</sup> 단 入의 穴位에 頸項 부위의 穴 이외에 각 經脈의 絡穴을 배속해 놓았다. 이 絡穴은 각 陽經에서부터 表裏 관계에 있는 해당 陰經으로 氣가 나가는 자리이므로 根結의 변화 과정을 거친 氣가, 陰에 속하여 精氣를 갈무리하는 五臟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3) 本標의 流注

『靈樞·衛氣』에서는 각 十二經脈의 本과 標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앞서의 根結과 의미와 비슷하다. 단 本의 위치가 根과 같이 四肢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더 體幹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標의 위치도 「根結篇」의 내용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

足太陽之本, 在跟以上五寸中, 標在兩絡命門, 命門者, 目也. 足少陽之本, 在竅陰之間, 標在窗籠之前, 窗籠者, 耳也. 足少陰之本, 在內踝下上三寸中, 標在背膂與舌下兩脈也. 足厥陰之本, 在行間上五寸所, 標在背膂也<sup>28)</sup>. 足陽明

之本, 在厲兌, 標在人迎頰挾頰額也. 足太陰之本, 在中封前上四寸之中, 標在背膂與舌本也<sup>29)</sup>. 手太陽之本, 在外踝之後, 標在命門之一寸也<sup>30)</sup>. 手少陽之本, 在小指次指之間上一寸也<sup>31)</sup>. 手陽明之本, 在肘骨中, 上至別陽, 標在顏下合鉗上也<sup>32)</sup>. 手太陰之本, 在寸口之中, 標在腋內動也<sup>33)</sup>. 手少陰之本, 在銳骨之端, 標在背膂也. 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三寸也<sup>34)</sup>. 凡候此者, 下虛則厥, 下盛則熱, 上虛則眩, 上盛則熱痛, 故實者, 絕而止之, 虛者, 引而起之.

앞서 「根結篇」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足三陰 모두와 手少陰의 標가 背膂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보면 背膂도 비록 陽部인 背部에 위치하지만 五臟으로 陰氣를 수렴하여 들이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根結篇」에서 足三陰이 任脈에서 結하여 陰氣가 모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標는 그 모이는 곳이 바깥쪽의 背部로 좀더 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標本의 의미에 대하여 『太素·經脈標本』에서

하였는데 여기서는 빠져있고 背膂만을 말하고 있다.  
29) 「根結篇」에서는 太倉에서 結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標가 舌本에 있다고 하였다. 張志聰이 太倉을 中脘으로 보지 않고 舌本으로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 「本輸篇」이나 「根結篇」의 내용과는 달리 手三陽 중 에서 유일하게 頸項 부위에 있지 않고 命門上一寸의 額角 부위에 있다.

31) 「本輸篇」에서는 “手少陽, 出耳後, 上加完骨之上.”이라 하였다.

32) 「本輸篇」에서는 “手陽明, 次在其膂外, 不至曲頰一寸.”이라 하여 足陽明의 人迎 다음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33) 「本輸篇」에서는 “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라 하였다. 手太陰과 이하에 나오는 手少陰과 手心主 등 手三陰은 모두 「根結篇」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으나 「本輸篇」에 이미 手太陰과 手心主의 穴이 언급되어 있으며 「衛氣篇」에서는 처음으로 手少陰이 내용이 나오나 背膂만을 말하고 있다.

34) 「本輸篇」에서는 “腋下三寸, 手心主也, 名曰天池.”라 하였다.

27) 『靈樞·本輸』에서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 二次脈手陽明也, 名曰扶突. 三次脈手太陽也, 名曰天窗. 四次脈足少陽也, 名曰天容. 五次脈手少陽也, 名曰天髑. 六次脈足太陽也, 名曰天柱. 七次脈頸中央之脈, 督脈也, 名曰風府. 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 腋下三寸, 手心主也, 名曰天池. 刺上鬲者, 喏不能欠, 刺下鬲者, 欠不能喏. 刺鬲鼻者, 屈不能伸, 刺兩鬲者, 伸不能屈.”이라 하여 陽經과 任督脈의 頸項部에 해당하는 穴과 手太陰과 手心主의 두 자리, 上下鬲과 鬲鼻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穴들은 氣가 유독 많이 모여서 結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根結篇」에서 빠져있는 手三陰 중 에서 手少陰을 제외한 手太陰과 手心主의 자리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

28) 「根結篇」에서는 任脈의 玉英과 膻中에서 結한다고

는 “氣血所出，皆從藏府而起，今六經之本，皆在四支，其標在腋肝輸以上，何也。然氣生雖從府藏爲根，末在四支，比天生物氣，從天根成地也。”라 하여 일반적으로는 氣血이 出할 때에는 五臟에서부터 일어나지만 하늘이 萬物을 생하여 氣를 흐르게 할 때에는 하늘이 뿌리가 되어 땅에서 완성한다는 것이다. 즉, 하늘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四肢가 오히려 뿌리가 된다고 하여 일반적인 氣血의 흐름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 (4) 經筋의 循行

『靈樞·經筋』을 살펴보면 十二經筋의 循行이 나오는데 모두 手足의 末端에서 起始하고 있다. 手足의 經筋은 주로 肌肉을 지나 四肢의 肘膝 關節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頸項 부위로 上行하여 頭面 부위에서 끝나게 된다. 足太陽經筋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足太陽之筋，起於足小指，上結於踝，邪上結於膝，其下循足外踝，結於踵，上循跟，結於臑。其別者，結於踰外，上膈中內廉，與膈中并上結於臂，上挾脊上項。其支者，別入結於舌本。其直者，結於枕骨上頭，下顏，結於鼻。其支者，爲目上綱，下結於頰。其支者，從腋後外廉，結於肩髃。其支者，入腋下，上出缺盆，上結於完骨。其支者，出缺盆，邪上出於頰。其病小指支跟腫痛，膈攣，脊反折，項筋急，肩不舉，腋支缺盆中紐痛，不可左右搖，治在燔鍼剗刺，以知爲數，以痛爲輸，名曰仲春痺也。

張介賓은 經筋에 대하여 經脈과는 달리 주로 뼈를 묶어주어 온 몸을 연결시키며 각각 일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그 지나가는 경로가 經脈과 서로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 일어나고 結하는 자리들이 四肢의 關節과 關節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四肢 末端에서 起始하는 이유는 筋이 木에 屬하여 그

榮華가 손톱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였다<sup>35)</sup>. 經筋은 비록 形體 중에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循行에 있어서 앞서의 輸穴이나 根結, 標本의 경우를 따르고 있어서 十二經脈의 循環과는 달리 각 經筋 자체의 流注 체계를 가지고 臟腑의 精氣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營衛氣血과 精氣의 특성

### 1) 營衛氣血의 특성

#### (1) 營衛氣血의 生成

우선 氣血은 水穀의 五味로부터 만들어지는데 『靈樞·經脈』에서 “穀入於胃，脈道以通，血氣乃行.”라 하여 胃로 들어온 穀氣가 脈道로 통합으로써 氣血이 行하게 된다고 하였다. 『靈樞·決氣』에서는 “上焦開發，宣五穀味，熏膚，充身，澤毛，若霧露之漑，是謂氣。中焦受氣，取汁變化而赤，是謂血.”이라 하여 氣血이 만들어질 때 上焦에서 五穀의 味를 선포하여 그 증 霧露와 같은 것이 氣이고 그 氣가 中焦로 들어가 津液의 형태로부터 변화된 것이 血이라고 하였다<sup>36)</sup>.

營衛의 生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靈樞·五味』에서 “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sup>37)</sup>，以漑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라

35) 張介賓은 “愚按十二經脈之外，而復有所謂經筋者，何也。蓋經脈，營行表裏，故出入藏府，以次相傳，經筋，聯綴百骸，故維絡周身，各有定位。雖經筋所行之部，多與經脈相同，然其所結所盛之處，則惟四肢豁谷之間爲最，以筋會於節也。筋屬木，其華在爪，故十二經筋，皆起於四肢指爪之間，而後盛於輔骨，結於肘腕，繫於膝關，聯於肌肉，上於頸項，終於頭面，此人身經筋之大略也。”라 하였다.

36) 『靈樞·癰疽』에서는 “腸胃受穀，上焦出氣，以溫分肉，而養骨節，通腠理。中焦出氣如露，上注豁谷，而滲孫脈，津液和調，變化而赤爲血.”라 하여 腸胃에서 水穀을 받아서 그 氣가 上焦에서 나와서 分肉을 따뜻하게 하고 骨節을 기르며, 血의 경우는 中焦에서 霧露의 기운이 나와서 骨節과 脈으로 들어가 變化하여 血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37) 馬蒔는 兩焦에 대하여 “胃納穀氣，脾乃化之，其精微

하여 水穀 중 精微로운 氣가 두 갈래로 갈라져서 營衛가 된다고 하였고, 『靈樞·營衛生會』에서는 “人受氣於穀，穀入於胃，以傳與肺，五藏六府，皆以受氣，其清者爲營，濁者爲衛，營在脈中，衛在脈外.”라 하여 營은 脈中에 있고 衛는 脈外에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 中上焦로부터 나오는 氣血이 脈道를 통하여 行한다고 하였고 營氣도 水穀에서 出하여 脈內를 行한다고 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營氣는 바로 脈道를 行하는 氣血을 가리키는 것이다. 營氣는 靜的인 血의 속성과 動的인 氣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衛氣는 脈外를 行하므로 脈內를 行하는 氣와는 성질이 다르고 나오는 장소에 있어서도 上焦나 中焦에서 出하지 않고 오히려 下焦에서 出한다고 하였다<sup>38)</sup>. 그러므로 脈內를 통하는 氣는 衛氣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肺에 쌓였다가 퍼지는 宗氣로 보아야 한다. 『靈樞·邪客』에서는 宗氣와 營氣, 衛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五穀入於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故宗氣積於胸中，出於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衛氣者，出其悍氣之慄疾，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晝日行於陽，夜行於陰，常從足少陰之分間，行於五藏六府。

宗氣는 上焦인 胸中에 쌓였다가 아래 心으로 내려와 呼吸을 行하고, 營氣는 津液을 내어 脈으로 들어 變化시켜 血을 만들어 四肢를 營

養하고, 衛氣는 항상 足少陰의 자리에서 出하여 쉬지 않고 낮에는 陽分을 돌고 밤에는 陰分을 돌아 五臟六腑로 行한다고 하였다. 張介賓은 『類經』의 「五味篇」에 대한 주석에서 “蓋人有三氣，營氣出於中焦，衛氣出於下焦，宗氣積於上焦.”라 하여 三氣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脈內를 行하는 氣血 중에서 血은 水穀으로부터 만들어진 津液이 脈으로 들어와 변화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氣는 肺에 쌓이는 宗氣의 영향을 받아 脈을 따라 氣가 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營氣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氣, 血, 津液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반면에 衛氣는 일단 水穀의 精微로운 기운이 五臟을 거친 후에 下焦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脈內를 行하는 氣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2) 營衛氣血의 역할

『靈樞·本藏』에서는 사람의 血氣精神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人之血氣精神者，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濡筋骨，利關節者也。衛氣者，所以溫分肉，充皮膚，肥腠理，司關闔者也。志意者，所以御精神，收魂魄，適寒溫，和喜怒者也。是故血和則經脈流行，營覆陰陽，筋骨勁強，關節清利矣。衛氣和則分肉解利，皮膚調柔，腠理緻密矣。志意和則精神專直，魂魄不散，悔怒不起，五藏不受邪矣。寒溫和則六府化穀，風痺不作，經脈通利，肢節得安矣。此人之常平也。五藏者，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六府者，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此人之所以具

之氣。先出於中焦，升則行於上焦，由肺而行五臟六腑，所以灌溉五臟也。其降則中焦行於下焦，而營氣生，其升則下焦至於上焦，而衛氣生，別出兩行營衛之道。”라 하여 氣의 升降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38) 『靈樞·營衛生會』에서 “黃帝曰，願聞營衛之所行，皆何道從來。岐伯答曰，營出於中焦，衛出於下焦.”라 하였다.

39) 『靈樞·營氣』에서 “營氣之道，內穀爲寶，穀入於胃，乃傳之肺，流溢於中，布散於外，精專者，行於經隧，常營無已，終而復始，是謂天地之紀.”라 하여 水穀이 胃로 들어와 肺를 거쳐 그 가장 精微로운 것이 脈으로 들어와 營氣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營氣는 心肺의 작용을 거친 氣血과 津液을 모두 포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受於天也，無愚智賢不肖，無以相倚也。

우선 水穀으로부터 만들어져서 脈內을 行하는 氣血 즉 營氣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 몸의 陰分과 陽分을 모두 滋養하며 形體인 筋骨의 陰液을 보충하여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반면에 脈外를 行하는 衛氣는 體表로 나와서 分肉을 덥히고 皮膚腠理를 충실히 하여 邪氣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開闔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五臟에 머물러 활동하는 志意가 있는데 精神魂魄을 다스리고 외부 六氣와 七情 변화에 대하여 調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五臟은 이러한 精神血氣魂魄을 안으로 갈무리하며 六腑는 그 바탕이 되는 津液<sup>40)</sup>을 水穀으로부터 生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衛氣는 營氣가 신체 자체를 滋養하는 것과는 다르게 陽의 성질을 가지고서 表로 달려가 皮膚分肉을 충실히 하여 邪氣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五臟 精氣의 방어 작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精氣의 특성

### (1) 精氣의 生成

精氣의 뜻을 크게 보아서 순수하게 정제된 精微로운 기운이라고 정의하였을 때 水穀으로부터 生하는 營氣도 精氣라 말할 수 있다. 『素問·痺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0) 津液은 形體를 滋養하여 활동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우리 몸의 內外表裏에 氣가 잘 행하여 각각의 생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각 부분에서 津液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津液은 다시 氣血로 生化하거나 精神의 居處로서 쓰이게 된다. 『靈樞懸解·營氣 三十四』에서 “肺主氣 氣化津 津則流溢於中 氣則布散於外。”라 하여 氣行과 津液生成의 관계를 말하였으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五味入口，藏於腸胃，味有所藏，以養五氣，氣和而生，津液相成，神乃自生。”라 하여 津液 즉 陰液이 충실할 때 神이 이에 生한다고 하였다.

榮者，水穀之精氣也，和調於五藏，灑陳於六府，乃能入於脈也。故循脈上下，貫五藏絡六府也。衛者，水穀之悍氣也。其氣慄疾滑利，不能入於脈也。故循皮膚之中，分肉之間，熏於膏膜，散於胸腹。

水穀에서 生하는 營衛 중에서 營氣는 衛氣에 비하여 더 정제된 것으로 어떠한 형체를 갖추어서 脈內로 들어가게 되고, 衛氣는 그에 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형체로 정제되지 않고 脈外를 빠르게 行하기 때문에 사납다고 표현한 것이다. 衛氣도 크게 보면 水穀之氣의 거친 상태보다 精化된 것이므로 그에 대비해서는 精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衛氣에 대해서도 『靈樞·營衛生會』에서 “營衛者，精氣也。”라 하였으며 『靈樞·五味』에서는 “黃帝曰，營衛之行奈何。伯高曰，穀始入於胃，其精微者，先出於胃之兩焦，以溉五藏，別出兩行，營衛之道。”이라 하여 營衛가 모두 水穀之精微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營氣나 衛氣의 역할을 보았을 때 그것이 外部 身體를 滋養할 뿐 五臟으로 들어와 精氣로서 갈무리 된다고는 하지 않았다. 『五味篇』에서 “溉五藏”이라 하였고, 『六節藏象論』에서 “五味入口，藏於腸胃，味有所藏，以養五氣。”라 하였으며, 『邪客篇』에서 “營氣者，泌其津液，注之於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라 하였는데 모두 五臟에 氣를 보내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 안으로 갈무리되어 간직되는 精氣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sup>41)</sup>. 위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精氣가 아니라 五臟 가운데 특히 腎에 갈무리되는 精氣는 그 작용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 (2) 五臟 精氣의 역할

41) ‘溉’나 ‘注’는 모두 물을 댄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안으로 五臟六腑가 常時的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氣를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五臟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특징을 살펴보면 營衛가 體表를 循行하는 것과는 달리 陰의 속성을 가지고 안으로 가장 깊숙이 간직된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陰者，藏精而起亟也。陽者，衛外而爲固也。”라 하여 가장 속인 陰部에 精이 갈무리 되어 極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sup>42)</sup>. 여기서 陰部는 구체적으로 五臟을 가리키는데 五臟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여 전체를 調節 運行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精이 갈무리된다고 한 것이다.

五臟이 精을 갈무리하는 것에 대하여 『素問·五藏別論』에서는 “所謂五藏者，藏精氣而不瀉也。”라 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是故五藏，主藏精者也。不可傷，傷則失守而陰虛，陰虛則無氣，無氣則死矣。”이라 하여 五臟이 갈무리한 精이 傷하면 氣가 없어지고 氣가 없어지면 죽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五臟의 藏精은 六腑의 기능과 구별되는데 『本藏篇』에서 “五藏者，所以藏精神血氣魂魄者也。六腑者，所以化水穀而行津液者也。”라 하여 五臟의 역할이 精神血氣魂魄을 갈무리하는데 있고 六腑 역할은 水穀之氣를 변화하여 津液을 生成 運化함으로써 우리 몸을 滋養하고 運動을 지속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하였다.

五臟이 精을 갈무리하는 중에서도 水臟인 腎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腎者主水，受五藏六府之精而藏之。”라 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모두 腎이 갈무리한다고 하였고, 『靈樞·本神』에서는 “腎藏精，精舍志。腎氣虛則厥，實則脹，五藏不安。”라 하여

42) 亟은 極과 같아서 變化 運動이 일어나는 場을 형성하기 위하여 極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해 張介賓은 『類經·疾病類·生氣邪氣皆本於陰陽』에서 “陰則主內而藏精，所以起亟也... 亟，卽氣也。”라 하여 精을 갈무리하였다가 그 精氣를 일으키는 것이라 하였고, 高世拭은 『素問直解』에서 “陽生于陰，由靜而動，故岐伯曰陰者，藏精而起亟也。精藏于陰而起亟，陰中有陽矣。”라 하여 精에서 陽氣가 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腎이 精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면 五臟이 모두 불안해진다고 하였다.

精氣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막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사람의 壽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요인을 말하였다.

上古之人，其知道者，法於陰陽，和於術數，食飲有節，起居有常，不妄作勞，故能形與神俱，而盡終其天年，度百歲乃去。今時之人不然也，以酒爲漿，以妄爲常，醉以入房，以欲竭其精，以耗散其真，不知持滿，不時御神，務快其心，逆於生樂，起居無節，故半百而衰也。

사람이 날 때부터 주어진 百歲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精을 다 써버리고 眞氣를 耗散시켜서 神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女子는 七歲에 腎氣가 盛해지기 시작하고 三七歲에 腎氣가 平均하였다가 七七歲에 天癸가 고갈되어 地道가 막히고<sup>43)</sup> 形體가 무너지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였고, 男子는 八歲에 腎氣가 實해지기 시작하고 三八歲에 腎氣가 平均하였다가 七八歲에 天癸가 고갈되고 精이 부족해져서 腎藏이 衰하고 形體가 다한다고 하였으니<sup>44)</sup>, 精의 충실함 여부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疾病의 豫防에 있어서는 같은 篇에서 “虛邪

43) 經水가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44) 『素問·上古天真論』에서 “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二七而天癸至，任脈通，太沖脈盛，月事以時下，故有子。三七，腎氣平均，故眞牙生而長極。四七，筋骨堅，髮長極，身體盛壯。五七，陽明脈衰，面始焦，髮始墮。六七，三陽脈衰於上，面皆焦，髮始白。七七，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丈夫八歲，腎氣實，髮長齒更。二八，腎氣盛，天癸至，精氣溢瀉，陰陽和，故能有子。三八，腎氣平均，筋骨勁強，故眞牙生而長極。四八，筋骨隆盛，肌肉滿壯。五八，腎氣衰，髮墮齒槁。六八，陽氣衰竭於上，面焦，髮鬢頽白。七八，肝氣衰，筋不能動，天癸竭，精少，腎藏衰，形體皆極。八八，則齒髮去。”라 하였다.

賊風, 避之有時, 恬惓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 하여 虛邪賊風을 피는 동시에 마음을 안정시켜 眞氣가 충만하게 하면 精神이 안으로 굳게 지켜서 病邪가 침입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였고, 『素問·通評虛實論』에서도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라 하여 精氣의 疾病 豫防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精氣는 五臟 중 腎에 갈무리되어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여, 앞에서 살펴본 營氣는 形體의 筋骨肌肉을 滋養하여 우리 몸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3. 一方的 經脈 流注와 五臟 精氣의 生成

#### 1) 五臟 精氣의 生成

五臟에 갈무리되는 精氣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上古天真論」에서 腎氣가 盛하고 平均해지는 것에 대하여 『類經·藏象類』에서는 “人之初生, 先從腎始, 女至七歲, 腎氣稍盛.”, “腎氣, 卽天癸也. 平均, 充滿之謂.”라 하여 腎이 성장하기 시작하여 精을 갈무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腎氣의 盛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天癸나 天真은 나이 즉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운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素問直解』에서 “天癸者, 男精女血, 天一所生之癸水也.”라 하여 精血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腎에 五臟의 精이 갈무리되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營氣의 生成 과정에서 살펴본 水穀之精은 穀氣로부터 精化된 氣를 말하며 그것이 그대로 腎精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水穀의 精氣는 단순히 水穀으로부터 정제된 氣를 의미하기 때문에 營氣와 衛氣 모두 精氣라 부를 수 있고, 營氣와 衛氣를 대비할 때에도 營氣가 더 정제된 것이므로 衛氣에 비하여 精氣라

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水穀의 精氣는 주로 中焦에서 만들어진 營氣의 형태를 가지고 上焦 宗氣의 힘을 빌어 經脈內를 통하여 운행하면서 五臟六腑에 氣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靈樞·營衛生會』에서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라 하였고, 『靈樞·邪客』에서는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라 하여 營氣를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五臟六腑가 활동할 수 있는 氣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였고 五臟 안으로 精을 갈무리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단, 『邪客篇』의 내용처럼 營氣가 四末을 營養하고 나서 안으로 五臟六腑에 氣를 注하는 과정에서 五臟의 精氣가 수렴되어 갈무리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여기서 『素問·經脈別論』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우선 食氣가 胃로 들어오면 肝으로 精이 퍼져서 氣가 筋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註家들은 胃의 水穀之精이 바로 肝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sup>45)</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營氣의 生成과 循行을 통하여 筋骨肌肉을 滋養할 때에 주로 心, 肺, 脾, 胃가 관여하므로 肝만을 대표로 들어서 筋을 滋養함을 말한 것은 내용상 비약이 있으며, 食氣가

45) 『太素·脈論』에서는 “食氣入胃, 胃之血氣之精, 散入五藏, 而獨言肝, 以肝爲木, 東方春氣, 爲物之先, 故也.”라 하였고, 王冰은 “肝養筋, 故胃散穀精之氣, 入於肝則浸淫, 滋養於筋絡矣.”라 하였으며, 『類經·藏象類·食飲之氣歸藏府』에서도 “精, 食氣之精華也. 肝主筋, 故胃散穀氣於肝, 則浸淫滋養於筋也.”라 하여 대부분 精을 穀氣之精으로 보고 있다.

胃口 들어와 결과적으로 形體를 滋養하게 되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표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오히려 肝은 원래 氣를 觸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食氣가 胃로 들어왔을 때 바로 消化를 시작하기 위하여 원래 갈무리해 놓은 精을 肝에서 氣化하여 筋으로 그 精氣를 보내어 運動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단 肝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水穀之氣가 精化되는 과정을 다시 '食氣入胃'라는 句로서 아래에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食氣가 胃로 들어오면 濁氣가 心으로 모인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濁氣는 아직 精化되지 않은 水穀의 거친 氣를 말한다. 이 濁氣가 心에 의해 精化되어 脈으로 스며들어가고 이 脈氣는 經脈을 流注하여 다시 肺로 모인다. 肺는 모든 經脈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全身의 經絡으로 이 精氣를 보내게 되는데, 줄기인 經脈으로부터 가지인 絡脈으로, 다시 가장 말단인 孫脈까지 퍼져나가면 氣가 속에서부터 體表로 나와서 가장 밖에 있는 皮毛에 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營氣가 水穀之氣로부터 精化되어 脈으로 들어와 肺의 宗氣에 의하여 四末로 퍼져 筋骨을 滋養하게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 다음을 살펴보면 毛脈合精하여 府로 氣를 보낸다고 하였다. 『太素·脈論』에서는 “毛脈即孫脈也，謂孫絡者，即精氣和合，行於六府，皆肺氣也。”라 하여 이 氣를 단순히 肺氣로 보았으며, 『類經·藏象類』에서는 “肺主毛，心主脈，肺藏氣，心生血，一氣一血，稱爲父母，二藏獨居胸中，故曰毛脈合精，行氣於府。府者，氣聚之府也，是謂氣海，亦曰膻中。”이라 하여 氣血이 습하여 精氣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毛脈의 의미에 대하여 張介賓은 毛와 脈으로 나누어 心肺의 氣血을 뜻한다고 보았는데 앞에서 氣가 가장 밖에 있는 皮毛까지 퍼져나가 있는 상태이므로 皮下에 위치한 脈의 의미는 포함될 수 없고 가장 밖의

皮毛에 있는 孫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行氣於府'의 氣가 어떠한 氣인가를 보자면, 뒤에서 府에 모인 精氣에 神明이 자리잡고 이 神明이 다시 사망의 藏으로 가서 머문다고 하였으므로, 이 氣는 바로 精氣이고 神明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46)</sup>. 이것은 水穀의 精氣인 營氣가 經脈을 循環하여 筋骨을 滋養하는 것과 다르며, 또한 五臟六腑로 氣를 보내어 일상적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것과도 다르다. 즉, 이 精氣는 五臟 깊숙이 갈무리되는 精氣로서 각각의 臟에 魂神意魄志의 五神<sup>47)</sup>을 머물게 하여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48)</sup>. 따라서 여기서의 府도 단순히 六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精氣가 모여서 저장되는 창고를 넓게 의미한다.

뒷부분을 다시 보면, 五臟에 五神이 머물게 되면 이 五神에 의해 五臟의 精氣가 조절되어 權衡의 경지<sup>49)</sup>에 이르게 되고 이로써 五臟의 精氣가 安定을 이루어 寸口에 모이게 되니 이 寸口를 통하여 五臟의 精氣를 살펴 死生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寸口를 통하여 死生을 결단한다는 것은 死生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五臟의 精氣를 살핀다는 것이니, 이 精

46) 精은 神明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五臟으로부터 七情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素問·宣明五氣』에서 “五精所并，精氣并於心則喜，并於肺則悲，并於肝則憂，并於脾則畏，并於腎則恐。是謂五并，虛而相并者也。”라 하였다.

47) 여기서 '府精神明'의 神明은 五神을 대표하는 것으로 魂神意魄志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神明이 사망의 五臟으로 갈라지면 五神이 되는 것이다.

48) 五臟의 精氣도 '毛脈合精'의 이전에 근원적으로 水穀之氣에서 출발하므로 五神도 결과적으로는 水穀之精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다. 『靈樞·平人絕穀』에서 “平人則不然，胃滿則腸虛，腸滿則胃虛，更虛更滿，故氣得上下，五藏安定，血脈和利，精神乃居，故神者，水穀之精氣也。”라 한 것이 이것이다.

49) 權衡은 저울추와 저울대로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절하는 神明의 작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氣가 바로 五臟에 갈무리되어 生老病死의 변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精氣인 것이다.

이상 『經脈別論』의 내용을 종합하면 穀氣로부터 精氣를 생성하여 五臟으로 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精氣를 갈무리하여 五臟 안에 五神을 머물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精氣가 五臟 속에 갈무리되는 精氣를 말하는 것이며 이 精氣는 우리 몸에서 가장 體表의 末端에서부터 만들어져 들어옴을 알 수 있다. 즉 ‘毛脈合精, 行氣於府’의 과정을 통하여 精氣가 생성되어 五臟 속에 갈무리 되는 것이다.

## 2) 一方的 經脈 流注와 精氣 生成

循環의 經脈 流注에 대한 『營氣篇』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水穀之精인 營氣가 끊임없이 고리와 같은 十二經脈을 循環한다고 하였다.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 精專者, 行於經隧, 常營無已, 終而復始, 是謂天地之紀.

이때의 精專者는 水穀之氣를 정제하여 만들어진 매우 精微로운 氣를 말하지만 陰性을 가지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여<sup>50)</sup> 정해진 經隧로만 행할 수 있다<sup>51)</sup>. 반면에 五臟六腑의 輸穴을 통해 氣가 流注하여 들어오는 것은 고리처럼 循環의이지 않고 一方的이며 모두 末端에서 시작하여 體幹 쪽으로 향하고 있다. 『本

輸篇』의 내용을 보면 末端의 井穴에서 시작하여 體幹 쪽의 合穴에서 끝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流注 경로를 설명하지 않고 氣가 모였다가 흘러가는 자리인 輸穴들만을 말하고 있다. 末端에서 시작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五臟 精氣가 體表의 毛脈으로부터 수렴되어 들어오는 흐름과 같은 것이며, 일정한 경로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營氣에 비하여 無形의 성질에 가깝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本輸篇』에서 “五藏六腑之腧, 五五二十五腧, 六六三十六腧也. 六腑皆出足之三陽, 上合於手者也.”라 하여 六腑의 氣는 모두 足三陽에서 出하여 위로 手三陽에 合한다고 한 것은 아래 五臟六腑의 精氣를 중심으로 본 것이다.

『根結篇』의 流注도 末端에서 시작하여 體幹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開闔樞를 모두 足經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五臟六腑의 精氣를 중시한 것이다. 三陽 開闔樞의 陽氣는 頭頸 부위에서 맺히고 三陰 開闔樞의 陰氣는 任脈에서 맺히는데, 이러한 곳이 바로 ‘行氣於府’의 府처럼 氣가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手足三陽經의 陽氣가 모이는 곳을 頸項 부위의 穴과 絡穴로서 다시 설명하였는데, 頸項의 穴位는 『本輸篇』과 동일하며 絡穴은 모인 氣를 表裏 관계의 五臟으로 전하는 곳이므로 역시 根結 流注의 목적이 五臟으로 精氣를 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衛氣篇』의 經脈 標本을 살펴보면, 本은 體幹 쪽으로 일부 약간씩 옮겨온 것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말단에 분포하고 있으며, 標의 경우에는 手足三陽은 『根結篇』과 마찬가지로 頭頸部에 標가 있고, 足三陰의 標는 任脈 위에 있는 동시에 背部로 나와 있으며, 『根結篇』에 언급하지 않았던 手三陰 중 手太陰과 手心主의 標는 『本輸篇』에서 “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 腋下三寸, 手心主也, 名曰天池.”라 한 것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精氣가 수렴되어 모이는 자리를 넓은 의미의 府라 할 수 있

50) 馬蒔는 “營氣者, 陰氣也. 由中焦之氣, 陽中有陰者, 隨中焦之氣, 以降於下焦, 以生此陰氣. 故氣之清者, 爲營, 又謂之營氣出於中焦者, 是也 …… 此營氣者, 陰性精專, 必隨宗氣以運行於經隧之中.”라고 하여 營氣가 陰性을 띠고서 宗氣의 도움을 받아야만 經隧를 통하여 運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營氣는 水穀之氣를 그대로 精化한 것이므로 어떠한 有形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51) 『靈樞·決氣』에서 “何謂脈. 岐伯曰, 壅遏營氣, 令無所避, 是謂脈.”이라 하여 脈의 역할이 營氣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막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는데 에 대하여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黃帝曰，余聞五藏六府之氣，榮輸所入爲合，令何道從入，入安連過，願聞其故。岐伯答曰，此陽脈之別，入於內，屬於府者也。黃帝曰，榮輸與合，各有名乎。岐伯答曰，榮輸治外經，合治內府。黃帝曰，治內府奈何。岐伯曰，取之於合。黃帝曰，合各有名乎。岐伯答曰，胃合於三里，大腸合入於巨虛上廉，小腸合入於巨虛下廉，三焦合入於委陽，膀胱合入於委中央，膽合入於陽陵泉。

五臟六腑의 精氣가 榮穴과 輸穴을 지나 合穴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떠한 길을 따라 들어오며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었는데 岐伯은 여기에 대하여 陽經의 경우만을 예로 들어 안으로 府에 屬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sup>52)</sup>. 榮穴과 輸穴은 그 氣가 외부로 잘 드러나 있는 곳이므로 치료에 있어서도 外經의 病을 다스리고 合穴은 곧바로 內府로 氣를 수렴하는 곳이므로 內府의 病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이것은 陰經에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合穴의 위치를 보면 手三陽의 경우에 手經의 合穴을 쓰지 않고 巨虛의 上下廉과 委陽<sup>53)</sup>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手

三陽이 足三陽에서 出하여 手經에 合하였기 때문에 아래 부위에 원래 六腑로 통하기 위한 合穴이 다시 있는 것이니 이것도 역시 五臟六腑의 精氣가 모이는 下部를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一方的 經脈 流注의 특징을 종합하면 우선 공간적으로 볼 때 循環의 流注처럼 일정한 경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五臟으로 갈무리되는 精氣일수록 더욱 精化되어서 無形의 氣에 가까워지므로 국한된 길을 가지 않고 자유롭게 行하는 것이다. 流注의 방향을 보면 가장 末端의 體表에서부터 體幹 쪽으로 精氣가 수렴되어 들어오는데 末端이나 體表는 營氣가 피져서 滋養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營氣의 활동 속에서 精氣가 수렴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營氣 즉 脈中의 氣血은 身體를 滋養하여 運動을 하고 나면 衰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러한 營氣가 末端의 變化를 거친 후 그 자체로 五臟의 精氣로 변하여 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다. 有形의 陰性을 가진 營氣에서 無形의 陽性을 가진 精氣가 나오기 위해서는 水穀之氣를 정제하여 營氣를 만드는 精化가 아니라 營氣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氣를 만들어 내는 다른 차원의 精化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精化 작용은 '輸精於皮毛'가 잘 이루어져 經脈 속의 營血이 가장 말단까지 퍼지게 되어

52) 陰經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類經·鍼刺類·六府之病取之於合』에서는 “此言合者 取三陽之脈 別屬府者 稱合 不取陰脈 以陽脈內屬於府。邪入 先至於府 後入於藏 故也。”라 하여 臟으로 邪氣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陰經에도 合穴이 있고 그곳을 통하여 精氣가 수렴되어 五臟으로 들어오므로 五臟의 合穴을 치료에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단, 六腑의 경우는 그 氣의 흐름이 뚜렷하므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陽經의 輸穴에서 따로 原穴을 둔 것도 氣의 흐름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53) 巨란 긴 곱자를 말하고 虛란 빈 공간이므로 巨虛란 胛骨과 脛骨 사이에 상하로 길게 파인 빈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의 위쪽 끝과 아래 쪽 끝이 각각 巨虛上廉과 巨虛下廉으로 上巨虛, 下巨虛라고도 한다. 『本輸篇』에서 足三陽의 五輸穴을 설명하고 나서 “復

下三里三寸，爲巨虛上廉，復下上廉三寸，爲巨虛下廉也，大腸屬上，小腸屬下，足陽明胃脈也。大腸小腸，皆屬於胃，是足陽明也。”라 하였고, 三焦下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三焦下輸，在於足大指之前，少陽之後，出於臆中外廉，名曰委陽，是太陽絡也。”라 한 것이 모두 手三陽의 下合穴을 말한 것이다.

54) 張介賓은 “按大腸小腸三焦 皆手三陽之經。然大小腸爲下焦之府 連屬於胃 其經雖在上 而氣脈不離於下 故合於足陽明之巨虛上下廉 三焦爲孤獨之府 其於三部九候 無所不統 故經之在上者屬手 輸之在下者居足 所以十二經中 惟此手之三陽 乃有下輸。故本輸篇曰‘大腸小腸 皆屬於胃 …… 三焦下輸 在於足小指之前 少陽之後 出於臆中外廉 名曰委陽 卽此謂也。’라 하여 手三陽의 下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신체의 滋養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났을 때 가능하다. 滋養 활동이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통하여 氣血을 消耗하여 일하는 과정이므로 五臟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生成은 末端에서 일어나는 氣血의 運行과 消耗를 통하여 활발하게 생명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邪氣臟腑病形篇」에서 말한 府와 같이 五臟의 精氣가 수렴되는 과정의 집합 장소로는, 陽經의 경우에는 體幹 중에서 頭, 頸項 등 陽氣가 모이기 쉬운 곳이 많고, 陰經의 경우에는 體幹 중에서 任脈의 上部, 腋部, 背俞 등 陰氣가 모이기 쉬운 곳이 많다. 즉 末端으로부터 시작하여 體幹의 上部에 精氣가 모였다가 이어서 下部의 五臟으로 들어와 갈무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精氣가 집합 장소를 지나 수렴되어서 결국에는 五臟六腑를 목표로 들어오므로 經脈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手經보다는 足經이 중심이 되고 있다. 營氣의 循環的 流注가 身體의 滋養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一方的 流注는 精氣의 수렴과 갈무리에 목적이 있는데, 經絡學說과 관련된 『靈樞』의 여러 篇들에서 대부분 五輸穴과 筋結, 標本 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經絡의 주요 기능과 목적이 外部의 滋養보다는 최종적으로 精氣를 수렴하여 갈무리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 3) 衛氣의 循環과 精氣의 관계

衛氣의 순환 경로를 살펴보면 일정한 經隧內를 통하여 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營衛篇」에서 “其浮氣之不循經者, 爲衛氣. 其精氣之行於經者, 爲營氣.”라 하여 營氣는 정제된 氣로서 經脈을 따라 行하는 반면에 衛氣는 가볍게 떠다니므로 經脈을 따라 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55)</sup>. 이것은 앞에서 말한 五臟 精氣의

無形의 성질과 유사한 것이다.

衛氣의 循環을 구체적으로 보면 낮에 陽分을 循環할 때에는 足太陽, 手太陽, 足少陽, 手少陽, 足陽明, 手陽明의 순으로 一周하고 마지막으로 足心의 陰分으로 들어간다. 陽經만의 循環은 일반적인 十二經脈이 手足陰陽經을 교대로 如環無斷하게 流注하는 것과는 다르고 각 經 자체의 流注와 經과 經 사이의 연결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성질은 밤에 陰分을 循環할 때도 마찬가지로 腎, 心, 肺, 肝, 脾를 순행하여 다시 腎으로 돌아올 때까지 구체적인 경로가 정해있지 않고 단지 서로 간에 氣를 ‘注’한다고만 되어 있다.

또한 衛氣가 陽分과 陰分을 하루에 二十五度씩 行할 때에 모두 足少陰腎에서부터 出하니<sup>56)</sup> 이것도 精氣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張介賓은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愚按衛氣之行 晝在陽分 然又兼足少陰腎經 方爲一周. 考之邪客篇亦曰衛氣者 ……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嘗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藏六府 然則無論晝夜 皆不離於腎經者 何也. 蓋人之所本 惟精與氣 氣爲陽也 陽必生於陰 精爲陰也 陰必生於陽. 故營本屬陰 必從肺而下行 衛本屬陽 必從腎而上行 此即衛出下焦之義 而腎屬水 水爲氣之本也. 故上氣海在膻中 下氣海在丹田 而人之肺腎兩藏 所以爲陰陽生息之根本.

精과 氣는 陰陽相成의 관계에 있으므로 陰

『靈樞·經脈』에서 “經脈十二者,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이라 하여 經脈이 깊어 있음을 말하였다.

56) 『靈樞·邪客』에서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常從足少陰之分間, 行於五藏六府.”이라 하여 衛氣가 晝夜로 陰分과 陽分을 行할 때 모두 足少陰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五臟六腑를 循行한다고 하였다.

55) 衛氣는 體表의 皮膚上을 빠르게 流注하며 營氣는 좀더 깊이 있는 經脈 속을 일정한 속도로 流注한다.

의營氣는 반드시 위에 있는 肺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며 陽인 衛氣는 반드시 陰인 腎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衛氣가 下焦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 하였다<sup>57)</sup>. 衛氣가 비록 水穀之精에서 나와 營氣와 갈라져 行하지만 항상 下焦의 腎에서 출하여 위로 올라가 循環한다는 것은 精氣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衛氣는 水穀의 精氣와 腎에 갈무리되어 있던 精氣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體表까지 나와서 循行하기 위해서는 水穀之精의 힘이 있어야 하지만 衛氣의 역할을 보았을 때에는 腎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성질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衛氣는 『本藏篇』에서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라 하였듯이 皮膚腠理를 충실히 하고 分肉을 덥혀서 體表의 開闔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詞氣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生氣通天論』에서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라 한 것이 바로 精氣의 속성을 가지고 下焦에서 출하여 體表로 가서 腠理를 固密하게 하는 衛氣를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五臟 精氣의 역할 중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준다.

體表를 항상 골고루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行하는 循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sup>58)</sup> 여기에는 안으로부터 氣를 끌어내서 퍼뜨리기 위한 多少의 힘이 필

요하다. 그래서 衛氣는 水穀之精의 힘을 빌어 晝夜로 일정하게 循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表로 나가 邪氣의 침입을 막아내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다하도록 만드는 精氣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衛氣가 精氣의 無形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皮膚腠理를 사납고 빠르게 行함으로써 그 循環 경로가 營氣에 비하여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다. 五臟 精氣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疾病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水穀之精氣 중에서 가장 精化된 氣의 힘을 일부 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營氣와 같이 陰性이 강한 氣에 편승한다면 움직임이 지체되고 일정한 경로 속으로 그 運行이 국한되며 그 지나는 위치도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 III. 結論

1. 循環的 經脈 流注에는 營氣의 循環과 衛氣의 循環이 있는데, 이 중 營氣의 循環은 水穀의 精氣가 中焦에서 출하여 心肺의 작용을 거쳐서 十二經脈의 手經과 足經, 陽經과 陰經을 번갈아 운행하여 고리와 같이 끊임 없이 도는 것을 말한다. 衛氣의 循環은 낮에는 足少陰에서 陽分으로 나와 手足의 陽經만을 운행하고, 밤에는 陰分으로 들어가 腎心肺肝脾의 순서로 운행하고 다시 腎으로 들어간다.

2. 一方的 經脈 流注 중 『靈樞·本輸』에 나오는 輸穴의 流注는 井榮腧經의 순서로 四肢末端에서 시작하여 體幹쪽으로 가서 肘膝關節 부위에 있는 合穴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특히 陽經의 경우는 六腑 모두 足經에서 출하여 위로 手經에 합한 것이라 하여 아래의 五臟六腑를 중시하고 있다.

57) 衛氣가 陽分을 行할 때 足太陽에서 手太陽으로, 足少陽에서 手少陽으로, 足陽明에서 手陽明으로 行하여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衛氣가 下焦에서 출하여 위로 升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58) 『靈樞·邪客』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臟六腑, 以應刻數焉.”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以應刻數’라고 한 것이 바로 五臟六腑로 氣를 보낼 때 항상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行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本輸篇』이나 『根結篇』 등에 나오는 一方的 經脈 流注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흐른다는 표현은 없다.

3. 『靈樞·根結』에 나오는 根結의 의미는 기운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여 가지나 잎에 이르러 열매가 맺히듯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 輸穴의 流注와 마찬가지로 각 經脈의 말단이 뿌리이며 體幹에 이르러 結한다고 하였다. 陽經의 氣는 주로 陽氣가 모이는 頭頸 부위에서 結하며 陰經의 氣는 주로 陰氣가 모이는 任脈上에서 結한다. 『靈樞·衛氣』에 나오는 각 經脈의 標本도 根結의 의미와 비슷하며 『靈樞·經筋』에 나오는 經筋의 流注도 역시 末端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4. 營衛氣血과 精氣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營衛氣血은 주로 水穀之氣에서 精化되어 만들어지는데 그 중 營氣는 주로 筋骨肌肉을 滋養하거나 일상적인 五臟의 활동을 위하여 氣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衛氣는 陽의 성질을 가지고서 表로 달려가 皮膚分肉을 충실히 하여 邪氣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五臟에 갈무리되는 精氣의 역할은 水穀에서 만들어지는 精氣와 다르게 五神을 머무르게 하여 온몸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주어진 壽命을 다 누리게 하는데 있다.
5. 五臟에 갈무리되는 精氣는 經脈을 循行하는 營氣가 末端까지 퍼져나간 후에 生成되어 다시 안으로 수렴되는데, 이 精氣가 府에 갈무리되고 여기에 神이 머물러서 五臟運動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곧 『素問·經脈別論』에서 말한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府, 府精神明, 留於四藏.”의 과정이다. 이와 같이 精氣는 末端에서 營氣가 몸을 滋養하고 消耗되는 과정에서 生成되어 一方의 經脈 流注의 과정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五臟에 갈무리된다.

6. 精氣가 生成되어 收斂되는 것은 循環의이지 않고 一方의 經脈 流注의 특징을 가지므로 그 방향이 末端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 들어오며, 營氣가 일정한 經隧를 통하는 것과 달리 精氣의 無形의 특성에 의하여 뚜렷한 경로가 없고, 최종적으로 五臟六腑가 속한 下部를 중심으로 집중된다.
7. 衛氣는 水穀의 精氣를 바탕으로 循環的인 經脈 流注를 하고 있으나, 그 경로가 뚜렷하지 않고 精氣와 마찬가지로 下焦의 足少陰에서 출하여 위로 올라오며 그 역할이 體表로 나가 邪氣의 침입을 막는데 있으므로 精氣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參考文獻

1. 金達鎬 : 注解補註黃帝內經靈樞. 서울, 의성당, 2002.
2. 金達鎬, 李鍾馨 : 注解補註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3. 白上龍 : 經絡에 대한 小考, 경희한의대는 문집 20(1), 1997.
4. 楊上善 : 黃帝內經太素. 서울, 대성문화사, 1986.
5. 嚴東明 : 營衛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6. 王冰 : 補注黃帝內經. 서울, 일증사, 1991.
7. 李容範 : 『黃帝內經』의 本輸理論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8. 張隱庵, 馬元臺 :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서울, 성보사, 1975.
9. 程士德 主編 : 素問注釋匯粹.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10.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2.

11.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12.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1.

